

사면불상四面佛像의 의미 재고再考

-전傳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을 중심으로-

류승진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사

I. 머리말

II. 전傳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출토 금동판의 4여래

III. 석탑 표면 장식 부조 사면불상

IV. 사면불과 시방제불十方諸佛

V. 맺음말

사면불상四面佛像의 의미 재고再考

-전傳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을 중심으로-

류승진

I. 머리말

현재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상설전시하고 있는 금동판불 4장과 서울 동국대학교박물관이 소장한 납석제사리호는 신라 경문왕景文王 3년(863)에 민애왕敏哀王(재위 838~839)을 추송追崇하기 위해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안에 봉안한 사리장엄의 일부이다.¹⁾ 2020년 1월 국립익산박물관의 개관기념 특별전 〈사리장엄-탑 속 또 하나의 세계〉에 출품되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적도 있었지만(도 1), 한국전쟁 이후 횡행한 도굴로 뿔뿔이 흩어진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67년 석탑의 해체 수리 때, 1층 탑신에서 금동판불과 사리호가 함께 안치되었던 정황이 확실한 방형 사리공이 발견되어 원래의 위치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금동판의 봉안 방식이나 사리호 안에 안치되었을 사리의 존재 등 사리장엄의 특징과 의미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수집되

지 못하였다. 때문에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사리장엄에 대한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몇 가지 남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4장의 금동판불의 도상과 의미이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4장의 금동판 위에는 짧은 선을 눌러 이어가며 새긴 삼존불이 새겨져 있는데, 양 협시보살의 모습과 천개天蓋, 광배, 대좌 등의 형태는 대동

소이다. 오직 본존만 원손에 둥근 지물을 든 여래, 촉지인을 맺은 여래, 지권인을 맺고 보관을 쓴 여래, 그리고 합장을 한 여래로 차이를 두어 구별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4여래가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조형물을 동서남북의 4방위와 연결하여 ‘사방불四方佛’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방불이란 밀교의 오방불五方佛 가운데 중앙의 여래를 제외한 동서남북 사방의 여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금강정경金剛頂經』 등의 후기 밀교 경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용어이다. 밀교 경전에는 사방불의 각 여래의 도상 특징이 매우 세밀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이를 만다라曼荼羅에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밀교 수법修法の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4여래가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조형물’ 중에는 이러한 밀교 경전에서 설하는 사방불의 도상 특징을 그대로 묘사한 예가 없고, 대신에 4면에 4여래를 나타낸 사실을 강조한 ‘사면불四面佛’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더 많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출토 금동판불은 4여래 중에 지권인을 맺고 보관을 쓴, 즉 밀교 존상의 도상 특징을 보이는 여래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밀교 사방불의 대표작으로 꼽혀 왔다.³⁾ 이에 본고에서는 금동판불 4여래의 도상 특징과 의미 등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사방불과 사면불에 대해 재고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 밀교와 밀교미술의 존재 방식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으로 회귀하는 일이 될 것이다.

II. 전傳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출토 금동판의 4여래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의 1층 탑신 사리공에 안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4장의 금동판은 모두 높이 14.2cm, 폭 15.5cm 정도로 정사각형에 가깝다(도 2). 금동판의 좌우 가장자리를 살짝 구부리고, 한 번에 동일한 간격으로 4개씩 구멍을 뚫어 서로 연결하면 상자 모양이 된다. 탑신석 안의 방형 사리공 크기가 동서 18cm, 남북 20cm, 깊이 15.5cm 정도이니, 금동판 상자를 넣으면 살짝 넉넉하였을 것이다. 사리공 벽과 금동판 상자 사이의 틈은 송진으로 메꿔 고정시켰는데, 송진의 두께가 두꺼운 곳은 3cm에 이른다.

안타깝게도 도굴로 인해 최초의 봉안 상태를 확인할 수 없지만, 금동판의 구멍 위치와 맞물린 흔적을 서로 맞춰보면 적어도 4장의 금동판이 어떤 순서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도 1. 국립익산박물관 개관기념 특별전 〈사리장엄舍利莊嚴-탑 속 또 하나의 세계〉 전시 모습(남기용 촬영)

1 황수영, 「新羅 敏哀大王 石塔記-桐華寺 毘盧庵 三層石塔의 調査」, 『사학지』 3-1(1969), pp.53-86.

2 류승진, 「韓國 四面佛像의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3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출토 금동판불을 밀교의 사방불로 해석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황수영, 앞의 논문(1969), pp.53-86; 이숙희, 「統一新羅時代 五方佛의 圖像 研究」, 『미술사연구』 16(2002), pp.3-44 등이 있다.



도 2. 전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출토 금동판불, 9세기 후반, 금동, 14.2×15.5cm, 국립중앙박물관(신수2309)

다만 금동판의 도금면이 사리공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혹은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금동판의 여래가 탑 안쪽의 사리를 향해 있었다면, 4여래는 보관을 쓴 여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축지인을 맺은 여래, 등근 지물을 든 여래, 그리고 합장한 여래의 순서로 연결된다.⁴⁾ 반대로 금동판의 여래가 탑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4여래는 보관을 쓴 여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합장한 여래, 등근 지물을 든 여래, 그리고 축지인을 맺은 여래의 순서로 배치된다.⁵⁾ 그런데 이는 바꾸어 말하면, 금동판의 도금면

4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해체 수리 결과에 대한 정식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당시 수리 담당자에게 사진과 정보를 입수하여 분석한 황수영은 금동판의 도금면이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리고 (1) 북방 마하비로자나불좌상, (2) 서방 무량수불좌상, (3) 남방 보생여래좌상, (4) 동방 아촉여래좌상의 순서로 금동판이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황수영, 앞의 논문(1969), pp.68-71. 이후의 연구들은 대부분 이 의견을 따랐다.

5 금동판의 여래가 탑 바깥쪽을 향하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이는 최웅천이다. 그는 감은사지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과 같이 통일신라시대 대부분의 방형 사리함이 안쪽이 아니라 겉면을 장식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최웅천, 「동화사 비로암 석탑 출토 납석제 사리호와 금동사방불 사리외함」, 『팔공산 동화사』 특별전 도록(국립대구박물관, 2009), pp.234-237; 이후 허형욱은 도금면을 밖으로 하여 금동판을 연결하였을 때 상자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재현하여 이 의견을 지지하였으나 금동판의 연결 순서는 수정하였다. 본고에서 도금면이 밖을 향한 경우의 연결 순서는 허형욱의 안을 따랐다. 허형욱, 『韓國 古代의 藥師如來 信仰과 圖像 研究』,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7), pp.159-164.

6 금동판의 도금면이 탑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었을 가능성은 유사 조형예와 구체적인 실사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황수영의 최초 보고에 “銅板의 鍍金이 없는 背面下部에는 약 6cm 높이까지 松脂가 附着되었으며 그 이상에는 靑鏽가 보이는데”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도금면이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금동판은 도금이 되어 있지 않은 면의 위아래 변색 정도가 현저하게 다르다(참고도판 1). 황수영, 앞의 논문(1969), p.68; 또한 사리공의 바닥면에 부착되어 있었던 금동판에 납석제사리호와 동일한 지름의 연화문이 새겨져 있었다고 하여, 바닥면의 도금면 또한 탑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사실 역시 금동판의 4여래 역시 탑 안쪽으로 사리를 향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게다가 4장의 금동판에는 좌우에 구멍이 있고 위아래에는 뚜껑이나 바닥면과 연결하기 위한 구멍이 없다. 즉 금동판을 연결하여 뚜껑과 바닥이 있는 일반적인 상자의 제작을 의도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다른 방형 사리함과 비교하여 얻어진 결론에 동의하는 것도 망설여지게 된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안에 사리공 내 바닥판의 소재나 상태 등 자세한 정보가 밝혀져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참고도판 1

이 안을 향하였다면 시계 방향으로, 반대로 금동판의 도금면이 밖을 향하였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권인 여래 → 축지인을 맺은 여래 → 등근 지물을 든 여래 → 합장한 여래가 순서대로 나타나, 도금면의 방향과 관계없이 금동판은 이 같은 순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⁶⁾ 이 순서에 따라 각 여래의 도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4여래의 도상

1) 지권인을 맺은 여래

4장의 금동판 중 가장 눈에 띄는 지권인을 맺은 여래부터 살펴보면, 여래는 천개와 원형 두광, 신광을 갖추었고,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 하였다. 천개와 광배는 특이점이 없으나 대좌의 중대中臺가 독특하다. 호족반虎足盤의 다리와 닮은 것으로 상대와 하대를 이어 마치 투조透彫한 것처럼 보인다. 또한 여래는 삼도에서 바로 이어지는 얇은 U자형 옷주름이 특색인 대의를 통견通肩으로 걸쳤고, 높은 보관을 쓰고 있다. 보관의 형태는 유명한 금동 반가사유상에서 볼 수 있는 삼산관三山冠과 유사하며, 넝쿨 무늬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또한 보관 밑으로 여래의 나발이 아닌 머리카락이 보이는 점 또한 주목된다. 여래의 얼굴 묘사는 소략하며, 합장하고 여래를 바라보는 양 협시보살도 천개와 원형 두광, 연화대좌를 갖추었으나 얼굴 묘사 등은 소략하다.

2) 축지인을 맺은 여래

동일한 구조의 삼존불이나, 여래는 오른쪽 어깨를 완전히 드러낸 편단우견偏袒右肩으로, 오른쪽 손등을 무릎 아래로 내려 축지인을 맺고 있으며, 왼손은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얹어 두었다. 얼굴 묘사는 한층 소략하며, 여래의 나발을 격자선으로 표현하였다. 연화대좌는 팔각의 중대를 의도한 듯하나 실제로는 방형 대좌에 구획하고 이중의 동심원을 장식하였을 뿐이다. 다만 중대의 양 측면에 지권인을 맺은 여래의 대좌에서 볼 수 있었던 호족반의 다리와 닮은 장식을 더하여 눈길을 끈다. 양 협시보살의 형태는 앞에서 살펴본 예와 대동소이하다.

3) 등근 지물을 든 여래

중대가 방형인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여래는 오른손을 가슴께로 들어올렸고,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올린 왼손 위에는 등근 지물이 놓여 있다. 지물은 뚜껑이 있는 함의 형태로 보주가 아닌 약함인 것이 틀림없다. 한편 여래는 양 어깨를 모두 가린 통견인데, 승기지僧祇支 위에

가사袈裟를 걸친 것이 아니라 편삼偏衫을 착용하고 있어 특이하다. 또한 왼쪽 어깨 위로 떨어지는 옷깃도 주목된다. 이외의 여래의 표정과 나발의 묘사, 대좌나 광배, 천개의 장식은 한층 더 소략해졌고, 양 협시보살도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4) 합장한 여래

4장의 금동판 중 가장 완성도가 높은 삼존으로, 합장한 여래의 위로 드리워진 천개는 장막을 갖추고 있으며, 광배와 대좌의 각 연판蓮瓣마다 장식이 더해졌다. 형태 또한 훨씬 균형 잡혀 있다. 특히 대좌의 중대에 입체감이 제대로 나타난 유일한 예이다. 여래의 얼굴 묘사는 여전히 소략하고, 육계에는 격자선 조차 굵지 않았으나 훨씬 안정적인 표현력을 보여준다. 양 협시보살의 형태도 다른 3장의 예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균형잡힌 형태가 인상적이다. 무엇보다 여래와 양 협시보살의 대좌가 구름무늬 혹은 넝쿨무늬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금동판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점이 앞의 세 예와 다르다.

2. 4여래의 구성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권인을 맺은 여래는 비로자나여래, 촉지인을 맺은 여래는 석가여래, 그리고 등근 지물을 든 여래는 약사여래로 보아 무리가 없다. 그러나 합장한 여래의 존명을 알 수 없어 구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4여래의 존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 이들이 밀교 사방불의 구성임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먼저 금동판불을 학계에 가장 먼저 알린 황수영은, 보관을 쓴 지권인의 여래를 금강계의 주존인 마하비로자나불摩訶毘盧遮那佛로 보고, 이를 북방에 위치시켰다. 그리고 나머지 여래들을 순서대로 배치하여 합장한 서방 무량수불無量壽佛, 약함을 든 남방 보생여래寶生如來, 그리고 촉지인을 맺은 동방 아촉여래阿闍如來로 보고, 이들을 합쳐 금강계金剛界 사방불로 지칭하였다.⁷⁾

금강계 사방불은 『금강정경』에서 정립되었는데, 여기에서 사방불의 구성은 동방 부동불不動佛, 남방 보생불寶生佛, 서방 무량수불無量壽佛, 북방 불공성취불不空成就佛이며, 각각의 수인은 순서대로 촉지인, 여원인, 정인, 시무외인이다.⁸⁾ 이후 금강계 만다라에 이르면 동방 아촉불, 남방 보생불, 서방 아미타불, 북방 불공성취불로 정리되는데, 이때는 정확한 몸의 색과 앉음새, 그리고 승물乘物까지 정해진다. 예를 들어 동방의 아촉불은 코끼리, 남방의 보생불은 말, 서방의 아미

타는 공작, 그리고 북방의 불공성취불은 가루라迦樓羅 위에 앉는다.⁹⁾ 즉, 금강계 사방불의 아촉불은 촉지인을 맺지 않고, 보생불은 약함을 들지 않으며, 무량수불은 합장하지 않는다. 금동판불의 4여래는 『금강정경』에서 설하고 있는 사방불의 특징과 일치하는 점이 전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강계 사방불에는 비로자나여래가 포함되지 않는다.

비로자나여래는 광명과 진리의 빛을 상징하며, 실체가 없는 무형의 법신法身으로 『화엄경華嚴經』에 이르러 그 개념이 완성된다. 이러한 비로자나여래의 개념은 밀교 세계관에도 흡수되어 『금강정경』과 『대일경』 등에서 모든 부처의 근본이자 본초불本初佛로 설해지며, 금강계와 태장계의 양계만다라 주존主尊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러한 비로자나불로부터 사방불이 분화되고, 다시 여기에서 모든 불보살이 나뉘어 거대한 만다라를 채워 가는 것이다.¹⁰⁾ 따라서 밀교의 세계관에서 비로자나여래가 사방불의 구성원 중 하나로 포함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비로자나여래를 포함하고 있는 금동판불의 4여래는 밀교의 사방불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동판불 4여래의 구성을 불교 경전에서 설하는 밀교 사방불의 명칭에 맞춰 보려는 노력은 지속되었지만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적은 없다.¹¹⁾ 그렇다면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조형예로 관심을 돌려보아야 한다. 실제로 ‘지권인을 맺은 여래, 촉지인을 맺은 여래, 약함을 든 여래, 그리고 합장한 여래’의 구성에 집중한다면 유사한 작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바로 우리나라의 ‘4여래를 하나의 세트로 한 조형물’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석탑 표면 장식 부조 사면불상이다.

9 『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 T866, 18:227c, “於其東方如上所說象座 想阿闍鞞佛而坐其上 於其南方如上所說馬座 想寶生佛而坐其上 於其西方如上所說孔雀座 想阿彌陀佛而坐其上 於其北方如上所說迦樓羅座 想不空成就佛而坐其上 各於座上”.

10 강희정, 「9세기 비로자나불 조성의 배경과 의미」, 『한국고대사탐구』13(2013), pp.142-145.

11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의 사리장엄을 중앙의 사리를 석가여래로 보고, 북방 마하비로자나불, 서방 무량수불, 남방 보생여래, 동방 아촉여래의 오방불 구성으로 해석한 서운길은, 오방불 여래의 구성이 경전과 다른 까닭은 선무외善無畏가 『금강정경』의 오방불 구성을 금강계만다라에서 변용한 것처럼 의림선사義林禪師의 ‘신라적 변용’ 때문이라 해석하였다. 서운길, 「신라 의림선사와 그의 밀교사상」, 『불교학보』 29(1992), pp.115-142; 그러나 의림선사의 밀교 사상이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의 건립과 사리장엄의 봉안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진 바 없다. 형이상학적 불교 사상을 구체적인 조형물에 연관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7 앞의 주4) 참조.

8 『金剛頂經』, T865, 18:221c-222a, “不動佛觸地 寶生施願印 無量壽勝定 不空施無畏”.

Ⅲ. 석탑 표면 장식 부조 사면불상

익산 미륵사지 중원의 목탑지와 동원·서원의 석탑은 우리나라의 탑이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불교가 처음 전래되었을 때, 삼국에서는 목탑을 주로 건립하였지만 이내 석탑으로 대체되어 갔기 때문이다. 초기 석탑은 형태의 구현에 중점을 두었지만 점차 나타나는 장식화 경향으로 표면에 장식 부조를 더하였다. 주로 탑의 기단 4면에 사천왕과 팔부중, 십이지상 등 4의 배수를 이루는 신중神衆을 새기는 일이 많았지만, 1층 탑신의 각 면에 1여래씩을 새긴 사면불도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석탑 표면 장식 부조 사면불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변화무쌍하여 지금까지 확인된 수십여 점의 작례 중에 서로 같은 예가 한 점도 없다.¹²⁾ 다만 몇 가지 질서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확실한데, 예를 들어 시간과 장소의 축이 존재하거나, 4여래의 중심이 석가에서 비로자나로 변화해 가는 것이 그러하다.

1. 첫 번째 질서, 시간과 장소의 축

석탑 표면 장식 부조 중에 여래가 등장하는 이른 예로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도 3)과 광양 중흥사지 삼층석탑(도 4)을 들 수 있다.¹³⁾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은 상·하층 기단에 각각 팔부중과 8구의 비천을 장식하였고, 1층 탑신의 4면에 둘러 4여래를 새겼다.¹⁴⁾ 여래는 이중의 두광과 신광을 갖추고 연화좌 위에 걸가 부좌하였다. 얇은 부조이고 마멸이 심하지만 여래의 균형잡힌 형태와 수인을 확인할 수 있다. 왼손에 둥근 지물을 들고 있어 가장 구분이 용이한 동쪽 여래부터 시작하여 시계방향으로,



도 3.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8세기 후반, 석재, 높이 5m, 강원도 양양 진전사지



도 4. 광양 중흥사지 삼층석탑, 8세기 후반, 석재, 높이 3.8m, 전라남도 광양 중흥사

남쪽에는 편단우견에 축지인을 맺은 여래, 서쪽에는 통견에 전법륜인을 맺은 여래가 새겨져 있다. 마지막 북쪽의 여래는 오른손이 완전히 파손되어 수인을 확인할 수 없다(도 3-1). 각 여래의 도상 특징과 관습적 해석을 바탕으로 4여래는 동면의 약사여래, 남면의 석가여래, 서면의 아미타여래, 그리고 북면의 존명 미상 여래의 구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북면 여래의 존명에 대한 실마리는 광양 중흥사지 삼층석탑에서 찾을 수 있다.¹⁵⁾ 광양 중흥사지 삼층석탑의 1층 탑신에는, 편단우견에 축지인을 맺었지만

			
동면	남면	서면	북면

도 3-1.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사면불

12 ① 서울 동국대학교 교정 내 삼층석탑, ② 서울 간송미술관 소장 탑신석, ③ 경기도 양평 지평리 삼층석탑, ④ 강원도 강릉 방내리 삼층석탑, ⑤ 강원도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⑥ 충북 청주 탑동 석탑, ⑦ 충북 괴산 삼방리 삼층석탑, ⑧ 충남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⑨ 경북 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삼층석탑, ⑩ 경주 동천동 탑신석, ⑪ 경주 안강 금곡사 삼층석탑, ⑫ 경주경찰서 내 탑신석 2기, ⑬ 국립경주박물관 야외전시실 탑신석 4기, ⑭ 전남 광양 중흥사지 삼층석탑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탑신에 여래를 새긴 예는 사불四佛을 의도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아진다. 류승진, 앞의 논문(2006), p.54.

13 석탑 표면을 부조로 장식한 가장 이른 예는 8세기 전반에 제작된 경주 장항리 오층석탑이다. 1층 탑신의 각 면에 문비형門扉形 부조와 함께 인왕상을 새겼는데, 이러한 부조는 분황사 모전석탑을 연상시킨다. 분황사 모전석탑의 인왕상은 실제로 개폐가 가능한 문의 양쪽을 지키는 모습이 환조에 가까운 고부조로 새겨져 있어서 통일신라의 석탑 표면 장식 부조와 조형적 성격을 달리하지만, 장항리 석탑에서 문비형 부조에 문고리까지 표현하여 내부 공간을 암시하고 있어, 이 석탑이 분황사 모전석탑과 통일신라 후기 이후의 표면 장식 부조를 가진 석탑을 잇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장항리 오층석탑은 표면 장식 부조가 있는 석탑의 실질적인 출발이되, 아직 본격적인 유행을 보기 이전의 과도기적 단계에 놓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장충식, 『통일신라 석조미술연구』(서울: 학연문화사, 2002), pp.127-128.

14 강원도 양양의 진전사는 늦어도 8세기 말에 창건된 사찰로, 석탑의 조영 연대도 8세기 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정영호, 『襄陽 陳田寺址 遺蹟 調査-石塔과 浮屠의 復原을 契機로-』, 『歷史敎育』 11·12(1969), pp.303-323; 이후의 연구자들은 안전하게 9세기 전반 제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상층 기단에 새겨진 팔부중의 양식을 분석한 미즈노 사야(水野さや)도 8세기 말 제작설을 제시한 바 있다. 水野さや, 『韓國江原道襄陽陳田寺址三層石塔の八部衆像について』, 『美学美術史研究室論集』 1(1982), pp.53-84.

왼손에 둥글고 뚜껑이 달린 함, 즉 약함을 든 약사여래가 동쪽 면에 새겨져 있다. 반대편 서쪽에는 오른손만 가슴 높이로 올려 시무외인 혹은 설법인으로 볼 수 있는 수인의 여래가 새겨져 있는데, 진전사지의 예와 비교하여 설법인의 아미타여래로 추정할 수 있다. 즉 동방의 약사와 서방의 아미타가 서로 축을 이루며 마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쪽에는 합장한 여래가 새겨져 있으며, 북쪽에는 특이하게 의자에 앉은 여래가 배치되어 있다. ‘의좌倚座’는 미륵불의 전형적인 좌세이므로,¹⁶⁾ 진전사지 석탑에서 존명을 알 수 없었던 북면의 여래까지 아울러 미륵불로 추정할 수 있다. 남은 남면의 합장한 여래도 진전사지 석탑의 예와 비교하여 석가로 볼 수 있다(도 4-1).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기단에 새겨진 신중神衆의 도상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기단의 남면에는 두 인왕이 서로 마주 보고, 좌우 동면과 서면에 사천왕이 둘씩 배치되어 있어, 마치 사찰 입구에서 인왕문과 천왕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는 동선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가장 안쪽의 북면에는 무릎을 꿇고 합장한 공양인이 서로 마주 보고 있어, 전각 안에서 예배를 올리고 있는 신도를 떠올릴 수 있다. 즉 기단의 부조는 사찰의 예배 동선을 따라가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상 프로그램에 따르면 탑의 정면인 남면에서 합장으로 신도들을 맞이하는 여래는 이 탑의 주인과 같은 위치이다. 본래 탑이 석가모니의 유골인 사리를 모신 묘장적墓葬的 성격의 건축물인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주인은 석가모니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현세의 여래인 석가와 미래불인 미륵이 남북의 축을 이루며 마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양양 진전사지와 광양 중흥사지의 석탑 사면불이 동일하게



도 4-1. 광양 중흥사지 삼층석탑 사면불

16 ‘의좌’는 동아시아 불교미술에서 ‘우전왕상優填王像’의 좌세로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삼화명 미륵삼존)이나 고려불화 중의 미륵하생경변상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일관되게 미륵불의 좌세로 인식되어 왔다. 주수완, 「미륵의좌상의 도상적 기원에 대한 연구」, 『진단학보』 111(2011), pp. 175-213 등.



도 5. 안강 금곡사 삼층석탑, 9세기 전반, 석재, 경상북도 경주 안강읍 금곡사

동면 약사, 남면 석가, 서면 아미타, 북면 미륵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¹⁷⁾

이러한 구성은 안강 금곡사 삼층석탑(도 5)의 사면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⁸⁾ 앞의 예와 달리 각 면에 삼중 방형 테두리의 주형卍形 감龕을 파고 그 안에 높은 부조로 4여래를 새겼는데, 먼저 왼손에 둥근 지물을 든 여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편단우전에 축지인을 맺은 여래, 오른편이 완전 파손된 여래, 그리고 수인 미상의 여래를 확인할 수 있다(도 5-1). 둥근 지물을 든 여래를 동면 약사, 축지인의 여래를 남면 석가로 비정하면, 앞서 설정한 동서의 축에 따라 동면 약사 맞은 편인 서면의 상은 아미타여래로, 남북의 축을 따라 남면 석가와 대치하는 북면에는 미륵이 위치하는 구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도 5-1. 안강 금곡사 삼층석탑 사면불

17 이와 같은 동면 약사, 남면 석가, 서면 아미타, 북면 미륵의 4여래 구성을 시텐노사(四天王寺)와 고후쿠사(興福寺) 등 일본의 고대 사원 탑기사방사불塔基四方四佛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시텐노사 탑의] 심주 사면불상은 서방 아미타삼존과 무동들, 북방 미륵삼존, 동방 약사삼존과 십이신상, 남방 석가삼존이다(心柱四面佛像 西方阿彌陀三尊 舞兒等 北方彌勒三尊 東方藥師三尊十二神 南方釋迦三尊)”, 『上宮太子拾遺記』卷3(『大日本仏教全書』卷71 史伝部), p. 74(320); “[고후쿠사의] 오층탑 1기 기단에는 동방 약사정토변 [중략] 남방 석가정토변 [중략] 서방 아미타정토변 [중략] 북방 미륵정토변 [중략]이 있다(五重塔一基…塔本東方藥師淨土變, 藥師佛一軀, 脇侍菩薩二軀, 羅漢像二軀, 神王像八軀, 薄山火爐一口(在花臺), 南方釋迦佛土變, 釋迦佛像一軀, 脇仕菩薩二軀, 羅漢像六軀…中略…西方阿彌陀淨土變, 彌陀佛像一軀, 脇侍菩薩等二十二軀(四金色)…北方彌勒淨土變, 彌勒佛像一軀, 菩薩六軀(二金色), 羅漢像四軀…)”, 『興福寺緣起』(『大日本佛教全書』卷119 寺誌叢書 第3), p. 14(14); 일본의 탑기사방사불을 연구한 나이토 도이치로(内藤藤一郎)도 탑의 묘장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탑에 사방사불을 표현한다면 탑의 정면인 남면에 석가모니가 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内藤藤一郎, 「上代塔基四方四仏の成立過程について」-『法隆寺壁画四仏淨土變考』補説-, 『東洋美術』 13(1931), pp.1-18.

18 이 탑의 정식 명칭은 ‘금곡사지원광법사부도탑’으로,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97호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일찍이 삼기산 금곡사와 『삼국유사』의 원광법사 기록을 연결시킨 정영호는, 정작 금곡사 부근에서 원광법사의 부도탑을 찾지 못한 사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이 탑은 별도로 전하는 석탑 부재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와전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정영호, 「원광법사와 삼기산 금곡사」, 『사촌』 17(1973), pp. 195-214. 본래 경내에 남아있던 지대석과 탑신석 1개, 옥개석 2매를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한 것으로, 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석탑 표면 장식 부조 사면불 중에 동면 약사, 남면 석가, 서면 아미타, 북면 미륵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유의미한 질서는 동서의 축과 남북의 축이다. 이미 신도들의 의식 속에 확고히 자리잡은 동방 약사여래의 정토와 서방 아미타여래의 정토가 공간의 축을 이루고, 현세의 여래인 석가와 미래불인 미륵이 시간의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세계는 동·서·남·북의 사방四方에 동남·남서·서북·북동의 사유四維를 더한 팔방八方의 모든 방위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상방上方과 하방下方을 더하면 3차원 세계, 시방十方이 세워진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축까지 더해지면 우리가 사는 우주가 완성된다. 즉 장소와 시간의 축의 교차하는 우주의 완성을 의미하는데, 그 곳마다 계시는 여래, 시방제불十方諸佛을 만날 수 있는 질서가 구축된 것이다.



도 6. 경주 동천동 탑신석, 9~10세기, 석재, 높이 60cm, 폭 71~85cm, 경상북도 경주 동천동

4여래의 순서가 방위보다 축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 사실은 경주 동천동 탑신석(도 6)의 사면불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⁹⁾ 4여래는 등근 지물을 든 여래, 축지인을 맺은 여래, 전법륜인의 여래, 그리고 수인 미상의 여래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석탑 3기의 예와 방향이 반대이다. 즉 등근 지물을 든 약사여래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축지인을 맺은 석가, 전법륜인을 맺은 아미타, 그리고 수인 미상의 미륵을 볼 수 있는 것이다(도 7-1).



도 6-1. 경주 동천동 탑신석 사면불

19 주변에 지대석이 남아있어 탑의 부재라 추정하지만, 탑신석에 우주隅柱와 옥개석, 대좌 등이 함께 새겨져 매우 독특하다. 또한 두 면은 매우 낮은 부조이고, 나머지 두 면은 높은 부조로 서로 양식이 다른 점도 특이하여 제작연대가 상당히 내려오거나, 재가공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약사와 아미타, 그리고 석가와 미륵이 서로 마주보아 장소와 시간의 축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변함이 없다. 즉 배치 순서에 변형이 일어나 서로 다른 사면불처럼 보이지만, 4여래를 시간과 장소의 축이 교차하는 질서에 따라 구성하고 있는 점은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탑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탑의 정면을 차지하고 있었던 석가여래의 위상이 변화하여 위치가 뒤바뀌는 점인데 이는 석탑 장식 부조 사면불의 또 다른 질서의 등장을 의미한다(표 1).

표 1. 축지인 석가여래 중심의 사면불

	약사	석가	아미타	미륵
광양 중흥사지 삼층석탑	 동	 남	 서	 북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동	 남	 서	 북
안강 금곡사 삼층석탑	 동	 남	 서	 북
경주 동천동 탑신석	 동	 북	 서	 남

2. 두 번째 질서, 비로자나여래의 등장

석탑 표면 장식 부조의 새로운 질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예는 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삼층석탑(도 7)의 사면불이다.²⁰⁾ 앞서 살펴본 안강 금곡사 삼층석탑처럼 각 면에 감을 마련하고



도 7. 김천 청암사 동삼층석탑, 9세기 후반, 석재, 높이 3.76m, 경상북도 김천 청암사



도 7-1. 김천 청암사 동삼층석탑 사면불

그 안에 여래를 모시고 있는데, 수인을 확인하기 좋은 상태는 아니다. 희미하지만, 동쪽 면에서는 왼손에 둥근 지물을 든 여래가, 그리고 남쪽 면에서는 오른손을 위로 하고 왼손을 아래로 하여 두 손을 마주 잡고 있는 여래가 확인된다. 다시 시계 방향으로 서쪽에는 편단우견에 축지인을 맺은 여래, 북쪽에는 설법인처럼 가슴 앞으로 두 손을 모은 여래가 순서대로 등장한다. 그런데 남쪽 여래의 손을 자세히 보면, 왼손의 손가락이 오른손 안으로 들어가 있어 지권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즉, 동면의 약사, 남면의 지권인을 맺은 비로자나여래, 서면의 석가, 북면의 아미타로 이루어진 전혀 새로운 구성의 사면불이 등장한 것이다(도 7-1).

새로운 구성은 이어서 청주 탑동에 위치한 탑신석(도 8)과 양평 지평리의 탑신석(도 9)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청주 탑동에 위치한 탑신석의 사면불은 당당한 체구에, 승기지 위에 통견으로 두른 가사의 표현이 모두 동일하다.²⁰⁾ 보존 상태도 양호하여 수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왼손에 둥근 지물을 든 여래부터 시계방향으로, 가슴 앞에서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 쥐 여래, 축지

20 김천 청암사 수도암에는 일렬로 배치된 대적광전大寂光殿과 약광전藥光殿 앞에 삼층석탑이 2기 서 있다. 이 가운데 동쪽에 있는 석탑의 1층 탑신에 사면불이 새겨져 있고, 서쪽 석탑의 1층 탑신에는 공양인과 보살의 모습이 새겨져 있지만 마멸이 심해 세부를 알아보기 어렵다. 두 탑의 양식으로 판단하건데 쌍탑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동탑이 먼저 제작되고 이후에 서탑이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21 탑신석 위에는 옥개석이 3매 올려져 있는데, 남아있는 상류부와 옥개석의 체감움을 고려해 볼 때, 오층석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충북대학교 · 호서문화연구원, 『청주시 역사유적』(서울: 학연문화사, 1983), p.216.



도 8. 청주 탑동 탑신석, 9세기 후반~10세기 전반, 높이 3.26m, 충청북도 청주 탑동



도 8-1. 청주 탑동 탑신석 사면불



도 9. 양평 지평리 탑신석, 9세기 후반~10세기 전반, 높이 2.69m, 경기도 양평 지평초등학교















도 9-1. 양평 지평리 탑신석 사면불

인을 맺은 여래, 그리고 양손을 모두 가슴 높이로 올려 전법륜인으로 인정되는 여래가 배치되어 있다. 두 번째에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 쥔 여래는 지권인을 맺은 것처럼 보이지만 손가락을 확인할 수 없다(도 8-1). 청암사 수도암 동삼층석탑의 사면불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동면 약사와 서면 석가, 북면 아미타의 도상은 동일하지만, 남면 비로자나의 수인이 느슨해진 변형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형은 양평 지평리의 탑신석에서 더욱 가속화된다.²²⁾ 왼손에 둥근 지물을 든 여래부터 시계방향으로 수인 미상의 여래, 축지인을 맺은 여래, 그리고 설법인을 맺은 여래가 표현되어 있다. 역시 남면에 지권인을 맺어야 할 비로자나여래를 제외하고 동면 약사, 서면 석가, 북면 아미타의 도상만 확인된다(도 9-1).

이와 같이 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삼층석탑 이래 나타난 사면불은 앞서 살펴보았던 양양 진전사지, 광양 증흥사지 등 초기 사면불과 다른, 새롭게 개편된 질서를 보여준다. 본래 남면에 위치하던 축지인의 석가가 지권인의 비로자나여래로 대체되면서, 연쇄적으로 남면의 석가가 서면으로 이동하고, 서면의 아미타는 북면으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북면에서 일정하지 못한 형태로 나타나던 미륵이 사면불의 구성에서 아예 빠지게 되었다(표 2). 지권인을 맺은 여래와 축지인의 여래, 약함을 든 여래,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수인의 여래의 구성은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출토 금동판불의 4여래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지권인 비로자나여래 중심의 사면불

	약사	비로자나	석가	아미타
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삼층석탑	 동	 남	 서	 북
청주 탑동 탑신석	 동	 남	 서	 북
양평 지평리 탑신석	 동	 남	 서	 북



도 10. 석조비로자나불좌상, 9세기 후반, 석재, 높이 2.51m, 김천 청암사 수도암

본래 탑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탑의 정면인 남면에 위치하던 석가가 지권인 비로자나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된 연유는, 8-9세기 여래형 지권인 비로자나불좌상의 대대적인 유행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²³⁾ 실제로 김천 청암사 수도암 대적광전大寂光殿의 본존도 여래형 지권인 비로자나불좌상이다(도 10). 수도암의 가장 안쪽에는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쥔 지권인을 맺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삼층석탑 사면불의 지권인 여래와 나란히 남향하고 있는 것이다. 지권인을 맺은 비로자나여래를 본존으로 모신 전각과, 같은 비로자나여래를 포함한 사면불의 석탑으로 구성된 예배 공간은 바로 대구 동화사 비로암의 공간 구성과 동일하여 주목해야 한다.

3. 대구 동화사 비로암과 김천 청암사 수도암의 두 비로자나여래

청암사 수도암 대적광전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높이가 250cm에 달하는 거상巨像인데, 하체에 비하여 어깨가 벌어지고 머리가 매우 커서 더욱 압도적이다.²⁴⁾ 그런데 육계에는 나발이 표현되지 않았고, 이마와 육계 사이에 얇은 홈이 둘러져 있고 군데군데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

22 이 탑은 양평 지평초등학교 교정 안에 위치하는데, 청주 탑동의 예와 동일하게 탑신석과 3매의 옥개석만 남아있다. 인근 탑사니골 길가에서 수습된 석재를 조립한 것으로 원래의 위치와 방위는 전혀 알 수 없으나 각 부재의 비율로 보아 삼층석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2층과 3층의 탑신석을 새로운 부재로 복원한 상태이다.

23 8-9세기 여래형 지권인 비로자나불좌상의 유행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고할 수 있다. 姜友邦, 「韓國 毘盧遮那佛像의 성립과 전개-圓融의 圖像的 實現-」, 『미술자료』 44(1989), pp.1-66[『圓融과 調和』, (서울: 열화당, 1990), pp.427-479에 재수록]; 文明大, 「智拳印 毘盧遮那佛의 성립 문제와 石南巖寺 毘盧遮那佛像의 연구」, 『佛教美術』 11(1992), pp.55-89[『圓音과 古典美 한국의 불상조각 2 統一新羅 佛教彫刻史研究(上)』, (서울 예경, 2003), pp.185-211에 재수록]; 金理那·李淑姬, 「統一新羅時代 智拳印 毘盧遮那佛像 研究의 爭點과 問題」, 『美術史論壇』 7(1998), pp.227-263; 이숙희,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의 신라적 변용과 특성」, 『미술사학연구』 (2006), pp.39-82; 강희정, 앞의 논문(2013), pp.139-173 등.

24 청암사 수도암 대적광전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수도암 인근 '북석리'라는 곳에서 한 노승이 옮겨왔다는 전설이 전하는데, 불상이 859년(헌안왕 3)에 창건된 청암사보다 먼저 제작된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朴亨國, 「韓國·統一新羅時代後期の石造毘盧遮那仏坐像について」, 『ヴェイローチャナ仏の圖像学的研究』 (法藏館, 2001), p.323.



도 11. 석조비로자나불좌상, 9세기 후반, 석재, 높이 1.29m, 대구 동화사 비로암

한편 대구 동화사 비로암 대적광전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김천 청암사 수도암 대적광전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 비하여 하체가 묵직하게 표현되었고, 얼굴은 작고 둥글며, 나발의 표현이 선명하다.²⁵⁾ 또한 대좌와 광배가 잘 남아있는데, 특히 대좌에 보이는 7마리의 사자는 이를 금강계 대일여래로 해석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²⁶⁾ 그러나 밀교 경전이나 도상집, 그리고 현존하는 금강계 대일여래상 중 육계와 나발이 있고, 가사를 두른 여래형으로 7사자 대좌 위에 앉은 예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오부심관(五部心觀)』에 그려진 7마리 사자 위에 결가 부좌한 지권인 대일여래는 천의를 두르고 화려한 영락으로 장식한 보살형으로, 대의를 두른 여래형의 대구 동화사 비로암의 비로자나여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²⁷⁾(도 12). 또한 『오부심관』

이는 금속제 부속품을 고정시키기 위한 홈과 못 구멍이었을 것이니, 그렇다면 흥미롭게도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출토 금동판불 중 보관을 쓴 지권인 여래와 동일한 보관 비로자나여래였을 가능성이 높다. 즉 청암사 수도암 안에 나란히 남향하고 계신 두 비로자나여래는 보관을 쓴 것과 쓰지 않은 것으로 구별된다. 반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구 동화사 비로암에는 삼층석탑 안에서 보관을 쓴 지권인 여래의 금동판이 출토되었고, 석탑을 마주보는 대적광전 안에는 육계 위에 나발이 잘 드러난 지권인 비로자나여래의 석상이 안치되어 있어 대비를 이룬다(도 11). 다시 말해 동화사 비로암 안에 함께 계신 두 비로자나여래 역시 보관을 쓴 것과 쓰지 않은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도 12. ① 『오부심관』 중 금강계대일여래좌상
② 운케이[運慶], 대일여래좌상, 12세기 말, 목재, 높이 31cm, 일본 고토쿠사[光徳寺]



도 13. ① 대일여래좌상, 887년, 목재, 높이 98cm, 일본 곤고부사[金剛峯寺]
② 운케이[運慶], 대일여래좌상, 1176년, 목재, 높이 98.8cm, 일본 엔조사[円成寺]

에 등장하는 금강계 대일여래는 사자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화좌도 존재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후 이를 입체적으로 조형한 예들의 대부분은 사자좌가 아니라 연화좌 위에서, 보관을 쓴 보살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기 때문이다(도 13). 즉 금강계 대일여래를 구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도상의 조건은 7마리 사자의 대좌가 아니라, 보관과 천의, 영락으로 장식한 착의법인데, 대구 동화사 비로암 비로자나불좌상은 특이하게도 착의법 대신 대좌를 취한 것이다. 이와 같은 취사선택은 도상의 다양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대구 동화사 비로암 안에서 이루어진 비로자나여래 도상의 다양성 확대는 대적광전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대적광전 밖의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금동판불 중 보관을 쓴 지권인 비로자나여래에서 보다 큰 폭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금동판불의 비로자나여래는 높은

25 동화사 비로암 대적광전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동화사의 창건에 대한 기록과 비로암 삼층석탑 출토 납석제사리호 명문의 검토를 거쳐 신라 왕실에서 조성한, 당시 중앙 양식의 불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작 시기는 삼층석탑의 사리 봉안보다 이른 것으로 여겨진다. 서지민,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의 도상 연구-광배와 대좌에 보이는 중기 밀교 요소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2006), pp.45-80; 민병찬, 「동화사 비로암 석조여래좌상연구」, 『팔공산 동화사』 특별전 도록(국립대구박물관, 2009), pp.214-225; 홍채아,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한 고찰-조성시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29(2018), pp.395-433 등.

26 朴亨国, 「七獅子蓮華座の図像について-韓国・統一新羅後期の石像毘盧遮那仏坐像を中心に-」, 『密教図像』 14(1995), pp.34-60(朴亨国, 앞의 책(2001), pp.348-363 재수록).

27 선무의善無畏가 저술한 『오부심관』은 당의 장안長安 청룡사靑龍寺에 유학하여 밀교를 배우던 일본의 승려 엔친(円珍)이 스승 법전法全에게 전수받은 것으로, 현재 일본의 미이시(三井寺)에 소장되어 있다.



도 14. 오지여래五智如來 중 아미타여래, 9세기 중엽, 각 높이 106-109cm, 일본 안쇼사[安祥寺]

식 부조 사면불은, 같은 예배 공간 안에 공존하는 주존 비로자나여래와의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밀교의 대일여래 도상을 부분적으로 차용하고 있다. 밀교 존상의 도상 특징을 일부 가져왔지만, 이를 그대로 구현한 예가 없다는 점은 이들이 밀교의 존상이 아니라는 반증이 될 것이다. 다만 서로 다른 여래로 시방제불十方諸佛을 표현하기 위하여 도상 규범의 틀을 넘나드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취할 수 있을 뿐이다.

삼산관 형태의 보관을 쓰고 있어서 금강계 대일여래와 유사하다. 또한 보관 아래로 나발이 아닌 머릿결을 묘사한 점은 보살의 형태를 의도하여, 금강계 대일여래의 도상 조건을 한층 더 갖추었다. 그러나 몸에는 천의나 영락을 걸치지 않았고, 여래처럼 대의를 두르고 있다. 즉 보살의 특징과 여래의 특징을 적절히 혼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삼도에서 바로 이어지는 얇은 U자형 옷주름의 대의는 인도 불상, 특히 간다라 불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드물게 경주 감산사 아미타여래입상에서 볼 수 있을 뿐이다. 흥미롭게도 양계만다라의 사방불 가운데 아미타여래가 이와 동일한 착의법을 보인다. 물론 양계만다라 중의 아미타여래는 정인을 맺고 보관을 쓰지 않는다(도 1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유행하던 지권인 비로자나여래의 도상을 흡수한 새로운 질서의 석탑 표면 장

IV. 사면불과 시방제불十方諸佛

거의 모든 대승경전은 현재의 시방十方에 편재遍在한 무수한 세계와 그 곳마다 머물며 설법하는 제불諸佛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시방제불의 개념은 초기에는 여러 방위에 각각 복수의 여래를 상징하는 직설적인 방법으로 표현되었으나 점차 하나의 방위에 하나의 여래만을 배치하는 상징적인 방법으로 여래의 무수함과 편재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사방에 사불이 존재하는 ‘사방사불四方四佛’의 개념으로 정리되었다.²⁸⁾ 예를 들어 『아미타경阿彌陀經』에서는 사방과 상방上方, 하방下方에 거하는 다섯 이상의 불명佛名을 모두 열거함으로써 ‘갠지스강의 모래[항하사恒河沙]’처럼 많은 제불의 편재성을 강조한다.²⁹⁾ 이밖에도 여러 대승경전에서 각 방위별로 서로 다른 불명을 열거하여 모든 곳에 계시는 여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관불삼매해경觀佛三昧海經』에 이르면 드디어 동방의 아촉阿閼, 남방의 보상寶相, 서방의 무량수無量壽, 북방의 미묘성微妙聲의 불명을 하나씩만 들어 ‘사방사불’로 ‘시방제불’을 상징하게 된다.³⁰⁾

물론 우리나라에서 4여래가 한 세트를 이루는 조형물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석탑 표면 장식 부조 사면불상이 이러한 시방제불을 표현한 것이라는 문헌적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면불은 구성과 도상 특징, 양식 등에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없어 특정 교리나 의례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조탑경造塔經으로 널리 인식되어 온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

28 사방四方과 사유四維에 상하上下를 더한 시방十方이 아니라 ‘사방’만으로도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의 모든 방위를 가리킬 수 있으며, 여기에 계시는 여래를 ‘사방사불’이라 칭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세계의 모든 여래를 칭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밀교의 사방불과는 다른 용어이다. 실제 대승경전에서는 ‘사방불四方佛’이라는 용어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29 『阿彌陀經』, T366, 12:347b-348a, “舍利弗 如我今者讚歎阿彌陀佛不可思議功德 東方亦有阿閼鞞佛 須彌相佛 大須彌佛 須彌光佛 妙音佛 如是等恒河沙數諸佛 各於其國出廣長舌相 遍覆三千大千世界說誠實言 汝等衆生當信是稱讚不可思議功德一切諸佛所護念經 舍利弗 南方世界有日月燈佛 名聞光佛 大焰肩佛 須彌燈佛 無量精進佛 如是等恒河沙數諸佛 各於其國出廣長舌相 遍覆三千大千世界說誠實言 汝等衆生當信是稱讚不可思議功德一切諸佛所護念 舍利弗 西方世界有無量壽佛 無量相佛 無量幢佛 大光佛 大明佛 寶相佛 淨光佛 如是等恒河沙數諸佛 各於其國出廣長舌相 遍覆三千大千世界說誠實言 汝等衆生 當信是稱讚不可思議功德一切諸佛所護念經 舍利弗 北方世界有焰肩佛 最勝音佛 難沮佛 日生佛 網明佛 如是等恒河沙數諸佛 各於其國出廣長舌相遍覆三千大千世界說誠實言 汝等衆生 當信是稱讚不可思議功德一切諸佛所護念經 舍利弗 下方世界有師子佛 名聞佛 名光佛 達摩佛 法幢佛 持法佛 如是等恒河沙數諸佛 各於其國出廣長舌相 遍覆三千大千世界說誠實言 汝等衆生 當信是稱讚不可思議功德一切諸佛所護念經 舍利弗 上方世界有梵音佛 宿王佛 香上佛 香光佛 大焰肩佛 雜色寶華嚴身佛 娑羅樹王佛 寶華德佛 見一切義佛 如須彌山佛 如是等恒河沙數諸佛 各於其國 出廣長舌相 遍覆三千大千世界說誠實言 汝等衆生 當信是稱讚不可思議功德一切諸佛所護念經”.

30 『觀佛三昧海經』, T643, 15:688c, “財首菩薩所散之華 當文殊上即變化成四柱寶臺 於其臺內有四世尊 放身光明儼然而坐 東方阿閼 南方寶相 西方無量壽 北方微妙聲”; 『관불삼매해경』에 등장하는 사방사불의 구성은 『금광명경金光明經』에도 동일하게 등장한다. 이러한 후기 대승경전의 사방사불은 밀교 만다라의 세계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아직 여래 간의 시각적인 구별이 확연하지 않아 밀교의 사방불과는 다르다. 『金光明經』, T663, 16:335b, “是金光明 諸經之王 若有聞者 則能思惟 無上微妙 甚深之義 如是經典 常爲四方 四佛世尊 之所護持 東方阿閼 南方寶相 西無量壽 北微妙聲”.

(이하 무구정광경無垢淨光經)』의 관련 구절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³¹⁾

『무구정광경』은 704년 당에서 한역된 이후 매우 신속하게 한반도로 전래되어 8세기 전반 이후 통일신라의 석탑 조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조탑造塔의 공덕에 대해 설하는 짧고 보편적인 내용이지만, 해석의 여지가 넓다. 탑을 세우고, 수리하고, 우요右繞하여 공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덕으로는 상서로운 일이 생기는 것, 질병이 치유되는 것, 장수를 누리는 것, 극락에 왕생하는 것 등으로 셀 수 없지만, 그 중에서 으뜸이 되는 것은 시방十方의 모든 부처를 보게 되는 것을 꼽고 있다.

만일 비구가 초파일이나 십삼일이나 십사일이나 심오일에 목욕을 하고 정성을 들여 새 옷을 입고 하루 낮, 하루 밤을 먹지 아니하거나, 혹은 불탑을 오른쪽으로 돌면서 이 다라니를 백팔번을 외우면, 백천겁百千劫의 죄업과 오무간五無間의 모든 죄가 소멸될 것이며, 내가 몸을 나타내어 모든 장애를 없애고, 그 소원을 만족케 하여 일체의 제불諸佛을 볼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³²⁾

통일신라시대 대부분의 석탑은 전체 높이가 4-5m에 이르기 때문에, 공양자가 탑의 주변을 우요하면, 그의 눈높이는 자연스럽게 1층 탑신에 맞춰진다. 즉 공양자가 탑을 돌면서 보게 되는 1층 탑신의 사면불은, 탑 공양의 공덕으로 볼 수 있게 된 ‘일체의 제불’을 의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때의 제불은 다양하되 친숙한 모습을 갖추어야 ‘관불觀佛’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약함을 든 약사여래, 전법륜인 혹은 그와 유사한 설법인의 아미타여래, 석탑의 실질적 주인인 축지인의 석가, 그리고 미래불인 미륵이야말로 당시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제불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 유행하기 시작한 지권인의 비로자나여래가 추가되기도 하였다.

주왕咒王의 법을 탑 속에 넣고 시방불十方佛을 생각하면서 정성껏 이 다라니를 외울 것이니라...(중략)...

구십구억 백천 나유타那由他的 갠지스강의 모래와 같이 많은 부처님이 거기에 와서 탑을 가지加持하고 부처님 사리를 모실 것이니라.³³⁾

31 통일신라시대의 조탑경으로 『무구정광경』을 제시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張忠植, 『新羅 塔婆에 있어서 造塔經의 영향』, 黃壽永 編, 『韓國佛教美術史論』(民族社, 1987), pp.111-145; 同著, 『新羅石塔研究』(一志社, 1987), pp.18-43 등.

32 『無垢淨光大陀羅尼經』, T1024, 19:720a, “若有比丘於月八日十三日 十四日十五日 洗浴護淨著鮮潔衣 於一日一夜而不飲食 或時唯食三種白食 右繞佛塔誦此陀羅尼滿一百八遍 百千劫罪及五無間皆得除滅 我除蓋障卽爲現身 令其所願皆悉滿足 得見一切諸佛如來”; 한글 번역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이운허 譯, 『무구정광대다라니경』, 『無垢淨光大陀羅尼經 外』 한글대장경 258 (서울: 동국역경원, 1999), p.8.



도 15. 납석제사리호, 863년, 납석, 높이 8.3cm, 지름 8.5cm, 동국대학교박물관

또한 이 구절은 시방제불이 팔부중, 사천왕, 인왕 등의 신중과 함께 사리를 외호外護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의 1층 탑신 사리공 안에서 법사리法舍利로 추정되는 소탑 3기가 발견되어 탑과 『무구정광경』의 관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이니,³⁴⁾ 금동판불에 새겨진 4여래에 사리를 외호하는 시방제불의 명칭을 붙여도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의 경우, 탑신석의 표면에는 사면불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탑을 도는 공양법이나 시방제불을 관觀하는 공덕과 연결시키기 어려운데, 오히려 탑 내부에서 보다 직접적인 고리를 찾을 수 있다. 바로 1층 탑신의 사리공 안에 금동판불과 함께 모셔져 있었던 납석제사리호에 새겨져 있는 명문이다. 둥글게 돌려 깎은 돌 표면에 흑칠을 하여 만든 작은 호 표면에 격자 선을 긋고 한 칸에 한 글자씩, 모두 7자 38행의 글자를 새겼다(도 15).

典專梵融心伊十在	惠紀十奄之成今宣敏禮無業四益若
永知 行智觀日癸時無	三弃月己上康哀懺越障千多夫福敏國
忠大唯 記未咸朽劫識 五路	葬蒼下未之大大行於廣門端聖業哀王
舍乃唯同專翰無通 劫之中之濁? 之	生旬之老王王道崇博其雖教造大奉
近昌師乃知知林射四 生類跋上之此義	星春有年舅之諱伏建利中有所石王爲
梵具心僧大大沙之年 生咸行愛緣功福效	霜秋三太以長明以佛物聿八設塔追
覺 德純德德干月歲 此賴蠹及常德願童前於至上二二日簇開子 罍者鎖萬利記崇	

←

명문의 내용은 석탑의 건립 연유부터 시작하여 건탑建塔의 공덕으로 이어지는데, 업장業障을 없애고 널리 이물利物 하는 것으로 불탑을 세우고 ‘예참행도禮懺行道’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³⁵⁾ ‘예참’은 불보살 앞에 예배를 올리고 참회懺悔하는 공양법으로 널리 이루어져 해석에 문제가 없지만, 이어지는 ‘행도’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행도行道는 『십송률十誦律』과 『오분율五分律』 등의 율장律藏에서 독경讀經, 좌선坐禪과 함께 거론

33 T1024, 19:720c, “以咒王法置於塔內 想十方佛至心誦念此陀羅尼卽說咒曰…中略…亦有九十九億百千那由他恒河沙諸佛 皆至此處加持彼塔 安佛舍利由加持故”; 한글 번역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이운허 譯, 앞의 책(1999), p.10.

34 황수영, 앞의 논문(1969), pp.81-82.

35 황수영, 앞의 논문(1969), pp.59-67.

되는 주요한 수행법 중 하나이다.³⁶⁾ 7세기에 인도를 순례한 의정(義淨, 635-713)은 『남해기귀내법전(南海寄歸內法傳)』에서, 본래 인도에서는 행도가 경행(經行)과 같은 의미로 한 길을 똑바로 나아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였는데, 중국에서는 불상의 주위를 오른편으로 도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으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³⁷⁾ 이는 실제 8세기 이전의 동아시아 불교문화권에서 불상을 오른쪽으로 도는 예배 행위를 행도라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좋은 근거가 된다. 일본에서도 승려들이 경전을 외우며 행렬을 지어 걷는 공양법을 ‘교도(行道)’라 불렀고, 여기에 불상이나 불당의 주위를 우오(右繞)하는 것까지 포함하였다.³⁸⁾ 여기에 쓰이는 불보살, 신중의 가면(行道面)과 의상이 따로 제작되어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³⁹⁾ 일반적으로 ‘행도(行道)’의 해석은 글자 그대로 ‘도를 행하다’로 풀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극히 유교적 사고 체계이며,⁴⁰⁾ 불교적 의미의 해석도 시도해 볼만하다. 그렇다면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의 명문에서도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예참과 함께 탑을 우요하는 공양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표면 장식 부조가 있는 석탑은 탑을 돌면서 1층 탑신의 사면불을 직접적으로 ‘관상(觀像)’하여 시방제불을 ‘불(觀)’ 수 있는 공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은 역시 탑을 돌면서 탑 안에서 사리를 수호하고 있는 금동판불의 4여래를 상상

36 望月信亨, 『佛敎大辭典』(世界聖典刊行協會, 1974), pp. 611a~612a; 『十誦律』, T1435, 23:20b, “以是因緣妨廢讀經坐禪行道”; 180c, “我欲善勝法中出家受具足戒作比丘 欲善勝法中行道”; 『五分律』, T1421, 22:122c, “諸比丘布薩時不肯時集廢坐禪行道”.

37 『南海寄歸內法傳』, T2125, 54:221b, “二十三 經行少病 五天之地 道俗多作經行 直去直來唯遵一路…中略…或可內設尊容爲釋迦立像 若其右繞佛殿旋遊制底 別爲生福本欲虔恭…中略…舊云行道 或曰經行”; T2125, 54:225b, “三十旋右觀時 言旋右者 梵云鉢喇特崎擎…中略…諸經應云旋右三匝 若云佛邊行道者非也”.

38 今泉淑夫編, 『日本仏敎史辭典』(東京: 吉川弘文館, 1999), pp.212-213 등.

39 일본의 행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유명한 것으로는 십이천(十二天)과 아미타내영(阿彌陀來迎)의 행도가 있다. 헤이안 시대 이후 밀교 수법의 장소를 수호하는 십이천(十二天)을 소환하기 위하여 십이천의 그림을 걸거나 병풍을 세웠는데, 걸개그림이나 병풍이 제작되기 전에는 승려들이 십이천의 가면(行道十二天面)을 쓰고 직접 걸으며 공양하였다고 한다. 당시 사용하였던 가면은 지금 교토국립박물관에 남아있다. 류승진, 『일본의 십이천과 밀교 의식』, 『무사: 문화와 예술의 후원자』(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20), pp.40-47; 이렇게 가면을 쓰고 ‘행도’하는 공양법은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교토(京都)의 소쿠조인(即成院)에서 매년 10월 행해지는 ‘이십오보살의 오네리쿠요(二十五菩薩お練り供養)’가 유명하다(참고도판 2). 소쿠조인에는 아미타여래의 내영(來迎)을 함께 하는 25구의 보살상이 안치되어 있는데, 바로 이 25구의 보살의 가면을 쓴 승려와 아이들이 절 밖에 설치된 무대 위를 걸어가며 극락정토 왕생을 염원하는 것이다.

40 諸橋轍次, 『大漢和辭典』卷10 (東京: 大修館書店, 1959), p.145.



참고도판 2

하며 시방제불을 ‘불(觀)’ 수 있는 공덕을 얻는 것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같은 공양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4여래가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사면불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하여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출토 금동판불의 4여래를 중심으로 석탑 표면 장식 부조의 사면 불상까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초기 석탑 표면 장식 부조 사면불상은 동방 약사와 서방 아미타의 장소의 축과, 현재의 석가와 미래불 미륵의 시간의 축이 교차하여, 우주의 모든 여래인 시방제불을 상징하는 질서를 유지하다가, 8~9세기 여래형 지권인 비로자나불이 유행하면서 미륵불 대신 비로자나불을 포함한 새로운 질서로 개편되었다. 새로운 질서 속에서도 시방제불의 표현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밀교 도상의 특징을 취사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변화선상에 바로 보관을 쓰고 지권을 맺은 밀교 도상의 특징을 가진 여래를 포함한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출토 금동판불의 4여래가 위치하는 것이다.

본래 대승불교에서 설하는 시방제불은 한없이 많고, 한없이 다양한 여래를 의미한다. 그러한 시방제불의 의미에 응답하듯이,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변화하는 사면불의 특징과 의미를 하나로 정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면불의 다양성은 경전이나 도상집에 의해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밀교의 사방불과 다르다.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출토 금동판불을 포함하여 여러 예에서 밀교 사방불의 도상 특징을 조각조각 찾아볼 수 있었지만, 하나의 완성본을 향한 방향성 없이 계속 흘러가며 변화하는 모습이 시방제불의 상징체로서 사면불의 본질이며, 이들을 밀교 미술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Abstract

Reexamination of the Significance of Four-sided Buddha Images
-Focusing on Sarira Reliquaries Presumably from the Three-story Stone Pagoda
of Biroam Hermitage at Donghwasa Temple in Daegu-

Ryu Seungjin*

The four gilt-bronze Buddhist plaques currently on display at the Daegu National Museum and the agalmatolite sarira reliquary owned by the Dongguk University Museum in Seoul form part of the same sarira reliquary set enshrined in the Three-story Stone Pagoda of Biroam Hermitage at Donghwasa Temple in 863, third year of the reign of King Gyeongmun of Silla, to commemorate King Minae (r. 838-839). The four gilt-bronze plaques forming the casket surrounding the sarira jar are inscribed with Buddha triads, respectively featuring the Medicine Buddha holding a medicine case in the left hand, a Buddha with hands held together, a Buddha with hands in the *bhumisparsa* (earth-touching) mudra, and a Buddha wearing a resplendent crown and hands in the *bodhasri* (wisdom-fist) mudra, each with an attendant bodhisattva on either side. According to their icon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onventional interpretations, the Buddha holding the medicine case has been identified as the Medicine Buddha of the east, the Buddha making the *bhumisparsa* mudra as Sakyamuni of the south, the Buddha with hands together as the Amitabha of the west, and the Buddha wearing a crown and making the *bodhasri* mudra as Vairocana of the north. More specifically, the Buddha wearing a crown and with hands in the *bodhasri* mudra has

* Associate curator, Iksan National Museum

been interpreted as Mahavairocana of Vajradhatu (diamond realm), the principal icon of esoteric Buddhism. the principal icon of esoteric Buddhism. Hence these four icons have been considered the major example of the four Buddhas of the four directions of esoteric Buddhism dating to the Silla period. In terms of iconographic characteristics, however, they do not correspond at all to the four Buddhas of the four directions of esoteric Buddhism, which are featured in the center of the Mandala of the Two Realms (K. Yanggye mandara) along with the Buddha of the center, comprising the five Buddhas of the five directions. Therefore, to properly understand their meaning and characteristics, rather than approaching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esoteric Buddhist art, they should be placed in the same context as similar examples of the “four-sided Buddhas,” which represent the four Buddhas on four sides.

Among the four-sided Buddha images of Korea, the largest number are relief carvings on stone pagodas. The four-sided Buddhas of stone pagodas are highly varied as if living beings, and there is not a single instance of two identical image. But they have been found to be naturally connected to each other according to several rules. First, the axis of time and place exists, so the Medicine Buddha of the east and Amitabha Buddha of the west form the horizontal axis of place, while Sakyamuni, the present Buddha, and Maitreya, the future Buddha, form the vertical axis of time. Considering the funerary nature of a stone pagoda, where the relics (sarira) of Sakyamuni are enshrined, in many cases Sakyamuni making the *bhumisparsa* mudra is carved on the southern side, which is the front of the pagoda. But the growing popularity of images of Vairocana making the *bodhasri* mudra gradually influenced the composition of the four-sided Buddhas on stone pagodas, and Sakyamuni, who had occupied the front of the pagoda, eventually gave way to Vairocana.

Around the time Vairocana making the *bodhasri* mudra began to appear among the four-sided Buddhas carved in relief on stone pagodas, there emerged cases of Vairocana images with the same iconography being created simultaneously in the same worship space. Sudoam Hermitage at Cheongamsa

Temple in Gimcheon has a stone pagoda decorated with four Buddhas on four sides, including a Buddha making the *bodhasri* mudra. In the same compound, a stone seated image of Vairocana making the *bodhasri* mudra was enshrined as the principal icon of Daejeokgwangjeon Hall. Likewise, the principal icon of Biroam Hermitage at Donghwasan Temple in Daegu is a seated statue of Vairocana making the *bodhasri* mudra, similar to the Buddha wearing a crown and making the *bodhasri* mudra found among the four gilt-bronze Buddhist plaques from the pagoda at the same hermitage. It is clear that an attempt was made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two with iconographic features such as the addition of the crown and variation of the robes. Within this new order, appropriate iconographic features of esoteric Buddhism were selected to differentiate the Buddhas because the four-sided Buddhas are symbolic of the countless Buddhas of all directions throughout the world (K. *sibangjebul*, literally “buddhas of the ten directions”). The Buddhas of the four sides, all different from each other, would have been an effective way of helping people to contemplate the Buddhas of the ten directions when circumambulating the pagoda. In the case of the Three-story Stone Pagoda of Biroam Hermitage at Donghwasan Temple where the four-sided Buddhas are not carved on the exterior, the inscription on the sarira jar mentions *haengdo*, a type of spiritual practice indicating circumambulation of the pagoda. The purpose of this practice would have been to circle the pagoda while imagining the four Buddhas protecting the sarira inside the pagoda and thereby attain the same virtue attained by contemplating the Buddhas of the ten directions.

Originally, the Buddhas of the ten directions described in Mahayana Buddhism refer to a countless number of Buddhas of infinite variety. As if reflecting this description, it is not easy to define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the four-sided Buddhas, which are infinitely varied as if living beings. They are generally found on the exterior of stone pagodas but are sometimes hidden on the inside; without a single, defined direction they seem to be in constant flux and change, which is the inherent nature of the four-

sided Buddhas as symbols of the Buddhas of the ten directions. This is also why they cannot be regarded as images of esoteric Buddhist art.

Keyword

the Four-Sided Buddha images, the Buddha of the Four Directions, the *bodhasri* (wisdom-fist) mudra, reliefs of stone pagoda, visualization of the Buddha, *Haegdo* (circumambulation)